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교육재정은 헌법적 가치” 교육감협의회, 정부 개편 움직임에 반대 성명… 교부율 20.79% 유지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며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교부금 수호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상성장을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는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접근”이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교부금 수호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의 책임 범

위를 확대하려면 그에 맞는 재정과 권한, 제도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뒷받침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초등돌봄전담사 행정역량 강화

전주교육지원청이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초등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행정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16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관내 초등돌봄전담사 207명을 대상으로 2026 초등돌봄전담사 청렴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교육행정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한수연 행정실장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의 기안문 작성과 지출품의 및 재정기안 작성,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 등 K-에듀파인의 핵심 기능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에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선착형 돌봄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성립 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물품 및 비품 구입 품의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오상근 기자

학교 관리자 리더십 맞춤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관리자 리더십과 학교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과 교감 9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행복한 학교문화를 위한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에 맞춰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교(원)감을 대상으로 ‘솔로몬의 갈등 조율학’을 주제로 다양한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방법을 교육했으며, 오후에는 교(원)장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을 리드하는 학교 경영자의 혁신 스위치를 주제로 혁신적 리더십과 학교 경영 비전을 공유했다. /오상근 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 현장 안착 박차

전북교육청, 민관협력 확대

학교 현장 밀착 지원 강화

학생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필요를 반영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민관 협력과 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부서 협의체를 구성해 학업과 심리·정서, 안전·건강, 복지 분야 사업을 연계하는 등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확대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단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연수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필요를 반영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민관 협력과 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지 도내 124개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또 지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두 차례 워크숍을 열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담당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공유

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호성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수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여름방학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 총력

경찰·학교와 합동 생활지도 나서… 학생 안전의식 높이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경찰과 학교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합동 생활지도 실시하며 학생 안전감 강화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저녁 덕진경찰서와 원산경찰서, 관내 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1학기 말 합동 교의 생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합동 생활지도 실시하며 학생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하게 1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과 경찰, 학교는 학기 말 학생 생활지도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학교 주변과 학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합동 생활지도 실시하며 학생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하게 1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올바른 또래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한편 흡연과 음주

등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또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안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건전한 생활습관 실천을 독려하는 등 예방 중심의 현장 생활지도도 실시했다.

전주교육지원청과 경찰, 학교는 앞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UP’

김제 한들중, '2026 온세상 문화 체험의 날' 운영 한국·중국 등 6개국 전통놀이·문화 체험 다채

김제 한들중학교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한들중학교는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2026 온세상 문화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필리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의 전통놀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김제시가속센터 소속 강사와 학교 교사, 원어민 교사가 함께 프

그램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각 나라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역사적 배경도 함께 배우며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협동 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익히며 다문화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몸소 체험했다.

학교는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운영하는 다문화교육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 발전 방향, 학생의 시각에서

전주학생의회, 1학기 정기회… 학교생활 개선 주제로 정책 제안 자기주도학습 위한 학생 정서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3개 안건 상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학생의회를 운영하며 학생자치 역량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기 전주학생의회 1학기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학생의원 22명과 협력교사들이 참석해 교육 현안과 학교생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며 학생의 시각에서 전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는 실제 지방의회 본회의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돼 학생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생자치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됐다.

학생의원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생 정서지원’을 비롯해 학교생활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한 학생의원은 전주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공분야와 지방의회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다”며 “실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의 중요성을 느꼈고 지방의회의 역할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은 “전주학생의회는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소중한 학생자치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글로벌 캠프 앞두고 사전 안전교육

전북교육청, 미국 뉴욕·시애틀 출국 앞둔 학생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와 글로벌 브릿지 캠프를 앞두고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성공적인 해외 연수 준비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전주교육대학교 김서종총장에서 2026년 글로벌 리더십 및 브릿지 캠프 참가 학생과 학부모, 인솔 교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말 미국으로 출국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시민 의식과 진로 탐색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안전교육과 함께 현지에서 수행할 모둠별 프로젝트와 탐구 활동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캠프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다졌다.

행사는 전호성 교육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학생 안전교육과 보건·성교육, 캠프 운영 안내, 반별 모둠 활동 및 분임 지도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해외 캠프는 목적에 따라 글로벌 리더십 캠프와 ‘글로벌 브릿지 캠프’로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